

시·도 지사후보 연쇄인터뷰

광주시장 한나라당 한 영

“광주시민 공감받는 ‘환경시장’ 되겠다”

- 선거 출마 계기는.

▲그동안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렇지만 막상 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을 때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파가 관을 치는 정치상황을 들어 만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저 자신을 내던지는 자세 없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한 앞의 밑 알’이 되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고 광주시민의 높은 의식을 믿고 용기를 내기로 했다.

- 예비후보로 미리 독특한 진선수 진 부대변인이 경선을 요구했다. 또 전략공천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견해도 많다. 경선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경선은 당이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 ‘최고선’은 결코 아니다. 경선이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만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늘 운영이 문제다. 경선을 전후해 불거진 잡음이나 후유증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무용론을 제기할 정도다. 결국 당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놓고 고민했을 것이고 당선 가능성과 후보로서의 경쟁력,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타 예비후보와의 경선 여부는 촉박한 정치일정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산책은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 민주당 박 후보는 경제시장, 열린우리당 조 후보는 일 잘하는 시장을 강조하는 등 후보들이 저마다 주장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한 후보가 생각하는 시장상은.

▲환경시장이다. 광주는 지금 도시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광주전원은 오염됐고 자동차 등에서 배출한 매연과 각종 소음이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야 할 무등산 자락은 각종 개발로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환경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위주의 정책을 펼 방침이다. 또 시장의 발전 전략을 환경적 영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 해소책은.

▲중소기업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만으로는 청년실업의 핵심인 대졸자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해 산학관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산업평화에 힘써 투자와 고용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밖에 교육·문화·환경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 실업해소와 질 좋은 서비스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

- 고속철도 건설 및 무안공항 개항 등과 맞물려 광주공항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으로 나눠 입장을 밝힌다면.

▲현재 광주공항 존폐 논란의 원인은 전국 최고 수준의 소음문제에 있다. 공항 인근 광산구 주민은 물론 상무지구 주민 등 3만여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또 그 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는 군용기에 의한 것이 더욱 크다. 따라서 민간항공 기능을 도시발전을 위해 계속 존치시키고 군 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무안공항이 개항 되고 접근교통망이 확충 개선했더라도 시민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항 폐쇄는 반대한다.

- 나주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일부에서는 광주 뚝을 전남에 줬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나주혁신도시 건설의 올바른 방향은.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따라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결정이 밀실에서 이뤄진 점이다. 향후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혁신도시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주거·문화·교통 등에서 결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 특히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 정착의 관건이 될 것이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하철 적자, 제2순환도로 적자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타지역에서도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시내

제2순환도로 적자보전계약 재검토 필요
교육·문화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버스 서비스 개선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추진한 감이 없지 않다.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편의를 내세워 지하철과 제2순환도로 건설이 추진됐다. 막대한 적자가 예견됐는데도 밀어붙인 결과, 지금은 연간 수백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삼키는 공룡으로 둔갑했다. 지금도 광주시는 남은 공사가 더 이뤄지면 적자보전액이 낮아져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민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남은 지하철은 경전철 등으로 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시민의 혈세를 무조건 퍼주는 제2순환도로 적자보전 계약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호남에 공을 들인다면서도 말만 앞서고 실제로 호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한나라당 후보로서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나라당은 그동안 호남 특히 광주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이면에는 구태 정치세력과 함께 호남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특정 정당의 노골적인 평가절하와 폄해 등에 따른 점도 많다. 또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민들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열중해 왔다. 하지만 수많은 지역 현안들은 한나라당의 지원 없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저는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이면서 최고 위원으로서 구심점이 돼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위직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천·무등산 등 도시화 후유증 심각
환경행정 실현 더 이상의 피해 막아야”

- 현 시장인 민주당 박광태 후보는 지난 시정 중 경제정책과 관련,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 기아차 생산라인 증설 등 투자유치 성과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의 경제정책을 포함, 그동안의 시정에 대한 평가는.

▲삼성 백색가전 이전이나 기아차 생산라인 증설 등 투자유치는 시민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유치는 전입시장 때부터 준비되고 추진되기 시작해 결실을 맺은 것일 뿐 단시간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특히 박 후보의 지나친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은 기업의 양극화와 편식을 불러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높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경제를 떠 받들고 있는 2천600여개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제품의 관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신기술 개발지원 및 판로, 정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장유지 및 근린공원 조성, 산업단지 지원시설 건설 등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열린우리당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문화의 전당을 만들기로 하는 등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문화의 전당은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광주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가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문광부 추진기획단과 광주시 문화정책실이 실무협의를 해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들 사이에 효율적인 협력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 또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놓고 문광부는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관리와 추진을 위해 법적 기반 구축 및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반면, 기획예

결어온 길

6·3 학생운동 주도...대문상 제정

한 영 후보는 1941년 전북 임실의 ‘정미소집 밭’로 태어났다. 한화자인 할아버지에게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전주여고를 졸업했다. 유일한 여학생으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한 후보는 6·3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등 눈에 띄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 같은 학창시절의 활동 때문에 한 후보는 졸업 후 공화당의 스카우트 대상이 됐다. 66년 공화당에 입당, 전남도 부녀 조직을 맡으며 정당 조직의 구성과 관리 등 현실 정치에 배웠다. 여성운동도 그해 9월 한국여학사회 광주지부를 조직하면서 시작했다.

3년여의 현실정치를 경험한 후 한 후보는 공무원 시험을 거쳐 1970년 전남도청 사회과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다음해에는 광주시 부녀아동과장까지 지내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자 3년여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한 후보는 이후 한국여학사회 활동에 주력하며 대문상(아내를 잘 보살핀 남편에게 주는 상)을 만들어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상임위원과 민주평통 광주지역 여성위원회의장,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광주지부 창설 초대 회장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쌓으며 지역 여성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이바지했다.

남편 정영일씨는 삼일회원 원장으로 지금도 병원을 운영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약

한 영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도시, 산업도시, 복지도시 등 3가지로 나뉘어 정리된다.

한 후보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가 경쟁력’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마인드를 가진 시민 만들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문화예술도시가 가능하다고 한 후보는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니스, 칸 등 세계적 문화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광주 비엔날레를 재정비한다는 생각이다. 또 ▲세계 속 한민족 뿌리 찾기 사업 전개 ▲2008년 한민족 아리랑 축제 개최 ▲세계문화도시 재단 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변화를 추구하는 산업도시 건설을 위해 한 후보는 2012 세계공산업 박람회 개최와 관광업 테마 엑스포단지 조성 등 광주 공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는 또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 전체 자동화시스템과 디지털 도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존과 개발이 함께 하는 친환경 첨단도시 육성을 위해 광주의 중심축인 무등산과 영산강 줄기를 산업과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살기 좋고, 매력있는 도시 광주’를 슬로건으로 하는 복지도시 건설 사업은 주민감사제 활성화로 투명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노인·장애우·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한 후보는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50% 이상 채우고 2010년까지 행정조직 인원 중 여성이 40%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2008년까지 전체 행정 공무원 중 여성 사무관이 30%, 여성 서기관이 20%, 여성 부이사관이 15%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동·옥성슬리브 우리탄출 망수전문! 지동 망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태양주목개발 TEL:061-262-0606

전립선 J2V www.j2v.net... 대전바이오메디칼 호남지사 ☎1588-3871

텔레마케터 전문가 과정 모집... 한국텔레마케터를센터

한국텔레마케터를센터... 문의 082) 412-3200-1